

부서·기관간 칸막이 조직문화 없애기 박차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 속도 시민편의 중심 협업 과제 발굴 하반기 시민들이 성과 평가

광주시가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부서 간·기관 간 칸막이 조직문화를 없애기 위해 '협업조직 문화 확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협업 형태를 제도화하고 시민편의 중심의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업조직문화 확산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내 34개 공공기관과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창의적 문제 해결 중심의 임시조직

(Task Force) 운영, 부서 간 정책(사업) 협업팀 운영 등 3가지 협업형태를 갖추고, 체계적 점검을 통해 협업 성과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시민생활 편의 중심의 협업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3일간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광주시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등 34개 기관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시-공공기관 협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노인일자리 발굴 등 복지 분야 2개 과제 ▲지역 산업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등 산업 분야 2개 과제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 추진 등 환경·안전 분야 3개 과제 등 6개 분야 15개 협업과제를 검토하고, 상반기 중에 준비를 마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 협업형태인 '문제 해결형 TF'

는 기존 조직으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창의적인 프로젝트 해결을 위한 임시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5급 이하 5명의 직원이 6개월 이내에서 프로젝트 수행에 전념하고 정책에 즉시 입안할 수 있는 보고서나 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소속 부서로 돌아가게 된다.

참여자는 성과에 따라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또한, 지난 3월에 부서 간 자율 협업과제 84개를 확정하고 시행중이다.

부서 간 협업과제는 부서 자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이나 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추진성과는 주관부서와 협력부서가 함께 공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구축 ▲이농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정책 발굴 ▲스마트 공장 도입

확산 ▲호남권 연구원간 감염병 공동 대응 방안 등 광주시 전체 부서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과제다.

시는 협업 문화가 조직 내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 진행사항을 내부 전산망을 통해 격월제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협업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광주시 혁신정책관은 "융복합 시대에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칸막이는 조직을 도태시킬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과제를 중점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을 통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광주청년 일 경험 드림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 극복 힘 내세요 김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0일 코로나19 방역업무에 고생하는 직원을 위해 자비선행회와 무등산 증심사가 준비한 간식세트를 전달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중현 증심사 주지스님, 김중호 행정부시장, 김상욱 자비선행회 상임이사, 박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광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20일~6월11일 접수

광주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 광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이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6월11일까지 창업경진대회 누리집(www.startupidea.kr)과 시청(스마트시티과) 방문접수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7월에 최종 6개의 우수작을 광주시장상으로 선정하고 총 1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분별 최우수작은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하게 되며, 광주문화산업진흥원의 '기술지원 컨설팅', 공공데이터 창업공간인 '오픈스퀘어-이' 입주 시 우선순위에 부여, 범정부 통합본선 출전권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통합본선 수상자는 창업 초기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멘토링, 창업 관련 전문교육, 금융지원 등을 받는다.

송권춘 광주시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증진하고 데이터기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 농기센터 임대료 감면도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영농철을 맞아 급증하는 농기계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평일 이용이 불가능한 농가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요일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에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전날 오후 5시부터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기종별로 최대 3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전화(광산본소 613-5328-9, 북부본소 575-5745-6)로 임대 가능한 일자를 확인하면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소비감소 및 일손부족 등 어려움을 처한 지역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도 한시적(4~7월)으로 감면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방역 담당 직원이 최근 사업소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대농기계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경력단절 청·중년여성 워킹맘자녀 멘토링 사업 확대 40명 8개월간 아동 돌봄 지원

광주시가 워킹맘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 사업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경력단절 청·중년여성이 멘토 자격으로 워킹맘자녀를 돌보는 '워킹맘자녀 청·중년여성 멘토링 사업'의 서비스 기간 등을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청·중년여성의 재능을 활용한 워킹맘 자녀 학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청·중년여성 40명이 초등학생 120명을 대

상으로 8개월간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습지원과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8개월로, 거점기관은 점진성을 고려해 기존 7개 기관에서 작은 도서관과 여성친화마을 등 8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참여한 아동 104명의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아동들은 점진성과 저녁식사 제공, 돌봄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고 서비스 기간과 거점기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8개 거점기관은 ▲마음나눔 작은 도서관(서구) ▲바람개비 작은 도서관(북구) ▲ESR 작은 도서관(북구) ▲도깨비 어린이 도서관(광산구) ▲지혜의 샘 작은 도서관(광산구) ▲숲속 작은도서관(남구) ▲심시일만나눔마을학교(남구) ▲수완장 자율마을 휴먼시아4단지 임차인대표회의(광산구)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소재지 거점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자부담 월 3만원으로 학습 및 독서 지도, 각종

프로그램, 저녁식사, 병원 동행 및 위급상황 대응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된다.

시는 멘토로 참여하는 청·중년여성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돌봄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돌봄내년 청·중년여성 멘토링 사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치구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광주여성 행복일자리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청년13(일+삶)통장' 인기

490명 모집에 1839명 신청 10개월 저축 100만원 지원

광주 청년의 생활안정을 돕고 금융역량을 키우는 '2020 청년13(일+삶)통장' 지원 사업이 큰 인기다.

13(일+삶)통장이란 '일(1)하는 청년에게 더 나은 삶(3)을 선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시는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청년의 생활안정을 돕고 금융역량을 키우는 소액의 단기 저축을 지원하는 '2020 청년13(일+삶)통장' 참여자를 8일까지 모집한 결과, 490명 모집에 1839명(경쟁률 3.7대 1)이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13(일+삶)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의 저축을 마련해주는 통장사업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접수를 했으며, 지원 대상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무작위 공개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추첨 과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최종 선정자는 14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발표하고 개별 휴대전화 문자로도 발송한다.

시는 청년통장 가입자에게 적금급 지원은 물론, 다양한 맞춤형 금융·근로·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손옥수 광주시 청년청소년과장은 "13(일+삶)통장이 어려운 여건에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광주청년의 미래 설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손해보험협회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NH농협손해보험